

파니움 - 제14번

성전 시험의 열쇠로서의 실망

Jeff Pippenger

2026-02-18

성소의 주제는 셋째 천사 기별의 초기에는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을 해명한 '열쇠'였고, 셋째 천사 기별의 끝에는 실망의 주제가 성전의 시험에 관한 성소 기별을 여는 '열쇠'이다.

또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2001년 9월 11일이 미국에서 긴급 신고를 상징하는 "911"과 일치하여 "9/11"로 이해된다는 사실은, 만물을 설계하신 분의 설계였다.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이해하는 것이 14만 4천의 운동을 그 자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오늘날에도 이천 년 전과 다름없이 자연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을 표상하신다는 사실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20/20" 시력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시력이며, 2020년의 실망은 열 처녀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성전이 인식되도록 하는 이정표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재림신자들의 경험을 예증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20/20 시력은 근본 진리들이 표상하는 후견지명과 결합될 때 더욱 탁월하다. 바울은 '선지자들의 영들은 선지자들의 영들에게 복종한다'고 가르치며,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처녀들은 요한이 그들을 십사만 사천이라 지칭하는 바로 그 처녀들과 동일하고, 요한은 계시록 144에서 그들을 처녀들로 지칭한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러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가을철의 첫 열매는 어린양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처녀들이며, 성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2020년의 실망이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2.

만일 한 재림교인이 14만 4천에 속하려면, 예언적 필연에 따라, 실패로 판명된 공개적 예언의 공표로 인해 야기된 실망을 반드시 겪었어야 한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주의를 돌리게 되는데, 그중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을 가지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August 19, 1890.

다니엘서 11장 15절의 파니움 전투는 16절로 이끄는 전투이며, 그 16절은 미국의 일요법령을 지목한다.

그리하여 북방의 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할 것이며, 남방의 군대는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그의 택한 백성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대적할 아무 힘도 없으리라. 다니엘 11:15.

이 절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러시아가 택한 백성을 함께 격파한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 일어난 로마의 흥기에 대적하여 설 자가 아무도 없으며, 로마는 세계 정복의 첫 단계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목한다. 16절에서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 로마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이 문자적 영화로운 땅 안에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41절을 예표하는데, 그때에는 영적 로마의 권위의 표가 영적 영화로운 땅으로서의 미국에 강요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두 뿔은 공화주의와 개신교를 표상한다. 다니엘 11장 15절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곧 안티오쿠스 3세이자 안티오쿠스 대왕으로 알려진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표상되는 남방 왕국을 격파한다. 안티오쿠스는 도널드 트럼프를 표상하고, 남방 왕은 러시아를 표상한다. 파니움 전투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선민 사이의 전투로서, 그 전투에서 안티오쿠스가 승리하였으나 그 후 그의 왕국은 문자적 로마, 곧 14절의 권세에게 정복되었다. 이 권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화주의 뿔의 외적 이상을 확립한다. 내적 이상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개신교 뿔로 표상된다. 두 뿔은 모두 파니움 전투에 있으며, 이는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온 그의 메시지를 지닌 개신교도로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250년

땅의 짐승의 두 줄기를 고찰하면, 1776년에 땅의 짐승이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1798년에 이르러(22년 후)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의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으며, 땅의 짐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그 통치를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50년 후인 2026년에 우리는 2025년 5월 8일에 시작된 내적 성전 시험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250'년은 안티오쿠스 대왕과도 관련된다. 기원전 457년의 칙령에서 시작하여 그로부터 250년을 계산하면 기원전 207년에 이르는데, 이는 파니움 전투 7년 전이며, 또한 프톨레마이오스가 라피아 전투에서 안티오쿠스를 격파한 때로부터 10년 후이다. 라피아 전투의 그 사건은 다니엘서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 11절은 물론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상응하는 공화주의 뿔의 외적 선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개신교 뿔의 내적 선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며, 요한계시록은 인들을 외적 예언의 상징으로, 교회들을 그와 병행하는 내적 예언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고레스는 세 칙령 모두를 대표하는데, 이는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스라 7장에 그 조서가 기록되어 있다. 12-26절. 그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기원전 457년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에스라 6:14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난외주, "조서"]을 따라'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이 세 왕은 그

조서를 제정하고, 재확인하며, 완성함으로써, 2300년의 시작을 표시하도록 예언이 요구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조서가 완성된 때인 기원전 457년을 그 명령의 연대로 취할 때, 칠십 이레에 관한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성취되었음이 드러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6.

기원전 457년에 고레스로 대표되는 세 가지 칙령에서부터 시작하여, “250”년의 기간은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그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안티오코스 대왕을 격파하였다)와, 이어서 안티오코스가 15절에 나오는 파니움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격파한 기원전 200년 사이의 역사 속에서 종결된다. 그 선은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를 도널드 트럼프와 대응시킨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시작, 곧 1776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그 여섯째 왕국의 부상을 대표하는 “22”년의 기간이 있다. 그 “22”년은 또한 2001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여섯째 왕국의 역사 말기에 숫자 “22”로 대표되는 역사를 보여 준다. “22”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상징이며, 그 결합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 안에서 성취된다. 이 여섯째 왕국은 공화주의를 외적 뿔로, 개신교를 내적 뿔로 가진 땅의 짐승이다.

“22”로 표상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은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곧 죄의 도말로 표상되는 바이며, 요엘의 기록과 베드로의 영감된 주석에 따르면 그것은 늦은비가 부어지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여러 때가 임할 때에 너희 죄가 도말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3:19.

죄의 도말은 하늘의 대제사장의 최후의 사역이다.

“옛날에 백성의 죄가 믿음으로 속죄 제물 위에 전가되고 그 피를 통하여 표상적으로 지상 성소로 이전되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실제로 하늘 성소로 이전된다. 그리고 지상 성소의 표상적 정결이 그것을 더럽혔던 죄를 제거함으로 이루어졌던 것같이, 하늘의 실제적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들을 제거하거나 도말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누가 그분의 속죄의 효익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들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은 조사, 곧 심판의 사업을 포함한다. 이 사업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그분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12.” 대쟁투, 421.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그 사역은 한밤중 외침의 절정에서 개시되었고, 또한 그 사역은 한밤중 외침의 절정에서 완결되는데, 베드로는 그 절정을 죄가 도말되는 시기로 규정하며, 그것은 ‘새롭게 함의 때’가 임할 때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의 시기를 표지한다.

조사심판의 사업과 죄의 도말은 주의 재림 전에 완수되어야 한다.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것들을 근거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그들의 사건들이 조사될 그 심판이 있는 후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죄가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의 때가 이를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고 분명히 말한다. 사도행전 3:19, 20. 조사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주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그의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대쟁투, 485.

“새롭게 되는 때”는 또한 “만물이 회복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이를 때에 너희 죄가 도말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주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 시작부터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만물이 다 회복되는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받아 두어야 할 이시니라. 사도행전 3:19-21.

‘새롭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주의 임재’로부터 온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였을 때, 엘렌 화잇은 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하신 사역은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엘렌 화잇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고 말하며, 바로 그 역사를 베드로 시대의 오순절의 때와 나란히 놓고, 그 두 예언적 역사선을 사용하여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을 가리켜 앞을 내다보게 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 지역에 전해졌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는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일은 오순절의 날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른 비’가 주어져 귀한 씨가 싹트게 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도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게 하시리라.’ 요엘 2:2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보다 더 약한 나타나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 때 이른비의 부어 주심 가운데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 늦은비 가운데 다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바라보았던 ‘새롭게 하심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 앞에서 새롭게 하심의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며, 또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 20.” 대쟁투, 611.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 운동은, 그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개시를 가져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었다.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로 표상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표상된 대로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조사 심판의 개시에까지 고조되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조사 심판의 종결에까지 고조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예표하였다. 마지막의 그 기간은 9/11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다시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조사 심판의 사역은 죽은 자들에게서 산 자들에게로 전환되었다. 비는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으실 때 임한다.

예수께서는 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스가라는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가라의 지시를 이행하려면, 자신이 늦은 비의 때에 있음을 알아야 함은 자명하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밝은 구름을 만드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밭의 풀을 주시리라. 스가라 10:1.

9/11에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로 강림하셨고, 늦은비가 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스가라의 "늦은비를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새롭게 함의 때"와 만물의 회복이 도래하였음을 참되게 이해하는 자들에게만 내린다. 영혼은 늦은비의 예언적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귀히 여길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11 인용.]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84.

9-11 당시 새롭게 되는 때가 시작되었고, 살아 있는 자들의 죄의 도말이 시작되었다. 그 심판은 아브라함의 삼단계 언약의 제1조항과 부합한다. 그 첫 조항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실 때 자기의 언약 백성과 그들이 나그네와 객으로 살았던 그 나라 둘 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었다. 첫 언약 백성은 마지막 언약 백성, 곧 십사만 사천을 예표하였다. 그 예언적 백성은 땅의 짐승의 개신교 뿔로서 심판을 받으며, 동시에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 뿔도 심판을 받는다.

공화주의의 뿔에 대한 심판은 그 역사의 말미, 곧 일요일 법령의 때에 임한다. 일요일 법령은 제16절의 성취, 곧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에 둔 사건(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대속죄일에)으로 표상된다.

안티오코스 대왕은 10절부터 15절에서 미국을 표상한다. 로널드 레이건은 10절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이는 40절의 소련 붕괴를 예표하였다. 이사야 8장 8절은 다니엘 11장 10절과 40절에 표상된 동일한 전투를 지목하며, 그 세 개의 병행 구절은 11절의 라피아 전투에서 러시아를 승리자로 식별할 수 있게 한다.

11절의 라피아 전투는 남방 왕(러시아)과 교황권의 대리 세력(우크라이나)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표하였다. 그 전쟁은 남반구 출신 첫 교황의 시대, 곧 아메리카 대륙 출신(남아메리카)의 첫 교황이 재임하던 때에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개시되었다. “남”은 세계주의, 심령주의, 공산주의의 상징이며, 11절의 전쟁이 도래했을 때 그 아메리카 출신의 남반구 첫 교황은 세계주의자 오바마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었다. 10절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건은 보수적 교황과 비밀 동맹을 맺었고, 이어 세계주의적 교황의 시기에 세계주의자 대통령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자들이 동원되었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이제 첫 북아메리카 출신이자 소위 보수적 교황과 공개적 관계에 있다.

레이건은 10절의 전투에서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비밀 동맹을 맺었고, 오바마는 교황 또한 오바마와 같이 세계주의자였던 시기에 11절의 전투를 개시하였다. 트럼프는 이제 레이건에 상응하는 교황과 공개적 동맹 관계에 있으며, 차이점은 초기의 비밀 동맹이 이제는 공개 동맹이라는 점뿐이다. 세 명의 교황과 세 명의 대통령은 10절, 11절, 15절의 세 전투와 상응한다.

“교활함과 간계에 있어 로마 교회는 실로 경이롭다. 그녀는 장차 될 일을 읽을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또한 그녀 자신이 지난날 사용하였던 바로 그 수단으로 그것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마침내 스스로 무오하다고 칭하는 이 권세의 도움을 구하여, 그녀에게서 비롯된 한 제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일에서 도움을 청할 때, 그녀가 얼마나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인지는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황권의 지도자들보다 교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더 잘 아는 이가 누구이겠는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에 걸친 모든 그 분파와 지부를 통하여, 교황청의 통제 아래 있으며 또한 그 이익에 봉사하도록 고안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룬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수백만의 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 아래 있는 자들로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들이 속한 정부가 어떠하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모든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비록 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맹세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로마에 대한 복종의 서원이 놓여 있어, 로마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서약으로부터 그들을 면제한다.

역사는 국가들의 일에 교묘하고 집요하게 스며들려는 시도와, 일단 발판을 얻으면 군주와 백성의 파멸을 대가로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추진해 온 사실을 증언한다. 1204년,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아라곤의 왕 피터 2세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선서를 받아냈다. ‘나, 아라곤인들의 왕 피터는 나의 주군인 교황 인노센트와 그의 가톨릭 후계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하여 항상 충성하고 복종할 것을 공언하고 약속하며, 그의 권위에 복종하여 내 왕국을 충실히 보전하고,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며, 이단적 패악을 탄압할 것을.’ — 존 다우링, 로마니즘의 역사, 권 5, 제6장, 제55절. 이는 로마 교황의 권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장들과도 부합한다. ‘그가 황제를 폐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신민의 충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모스하임, 권 3, 11세기, 제2부, 제2장, 제9절, 각주 17.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자랑이라는 사실이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인노첸티우스 3세의 원칙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권력만 있다면, 지난 세기들에서와 다름없는 강력함으로 지금도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일요일 높임의 사업에 있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 성취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는 자기의 권력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패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 곧 종교적 준수가 세속 법률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는 원칙, 요컨대 교회와 국가의 권위가 양심을 지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로마의 승리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개신교계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야 비로소 로마의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소리 없이 권세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녀의 교리는 입법의 전당들과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녀는 그 비밀스러운 깊숙한 곳들에서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높고도 거대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다. 때가 오면 일격을 가하여 자기 목적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녀는 남몰래 또한 의심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고지일 뿐이며, 이것이 이미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적 요소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비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대쟁투, 580, 581.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이어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세계주의자들이 2020년 선거를 탈취하였으나, 그것은 20/20 시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인정된다. 13절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에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권세로 '귀환'하며, 15절에 언급된 파니움 전투와 황금시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그 뒤 2025년에 레오 교황이 이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래하였으니, 그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세 전투와 연관된 세 교황 중 셋째이며, 또한 그 전투들과 관련된 세 대통령과도 연관되어 있다. 첫째와 셋째의 교황과 대통령은 보수적이라 여겨지며,中间的의 교황과 대통령은 세계주의자였다. 첫 번째 동맹은 비밀이었고 마지막 것은 공개적이니, 이는 14절에서 말세의 예언들의 외적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31일, 첫째 칙령의 사역으로 예표된 첫째 천사의 사역이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다. 그 기초적 시험은, 십사절에서 목시를 세우는 자가 로마라고 윌리엄 밀러가 식별한 것이 옳았는지 그른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목시를 확립하는 표상을 로마로 식별한 밀러의 규정은, 여러 면에서, 밀러의 모든 기초 진리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이다. 밀러가 어떻게 어떤 이해들에 도달했는지는, 그의 시대와 상황에 성별된 이성을 적용함으로써만 추론해 낼 수 있지만, 그의 예언적 발견들 가운데 일부에 관해서는, 그가 그러한 이해에 이르렀던 이유를 말해 주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 존재한다. 그의 이해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목시를 세우는 자가 로마라는 그의 식별이었다.

밀러는 다니엘서에서 '제거되었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탐구했는지를 직접 증언한다. 그는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밝혀 줄 뿐 아니라,

자신이 찾아 헤매던 보석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에 대해서도 말한다. 아폴로스 헤일은 밀러 자신의 저술에 대한 논평을 기록하였고, 다음의 구절에서 헤일은 밀러가 어떻게 예언의 연구자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1798년에 인봉이 풀린 빛의 사자인 밀러는, 책의 '인봉'이 '풀릴' 때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라 다니엘이 부른 이들의 거룩한 본보기이다. 그가 어떻게 성경 연구로 인도되었는지에 대한 밀러의 증언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본보기이다. 밀러의 성장 과정에 유의하라. 그는, 비록 그들 또한 밀러처럼 오류의 어둠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증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의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1816년 5월에 나는 죄에 대한 깊은 확신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오, 어떤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 영혼을 가득 채웠던가! 나는 먹는 것마저 잊었다. 하늘은 낮과 같이 보이고, 땅은 철과 같이 보였다. 이와 같이 10월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셨다. 그리고 오, 내 영혼아, 내가 발견한 예수께서 어떠한 구주이신지! 내 죄가 무거운 짐과 같이 내 영혼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나니 성경이 내게 얼마나 명백해 보였던지! 그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고, 모든 쪽마다 모든 줄마다 그가 계셨다. 오, 그것은 복된 날이었다! 나는 곧장 하늘 본향으로 가고 싶었다. 예수께서 내게는 모든 것이 되셨고, 다른 모든 사람도 내가 본 그대로 그를 보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내가 잘못 생각하였다.

"내가 이신론자였던 열두 해 동안에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역사서를 읽었으나, 이제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성경의 적지 않은 부분이 어두웠다. 1818년이나 1819년에, 내가 방문하여 담화하던 한 친구—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나를 알고 내 말을 들었던—가 다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물었다. '이 구절과 저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던 옛 성구들을 가리킨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계시를 주셨다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성령께서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결심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이런 성경 연구의 방식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그러한 본문들의 단어들을 취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 그것들을 추적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의미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크루던의 콘코던스[1798년에 구입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과 나의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신문을 조금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으니, 이는 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읽어 나갔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에 이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두루 찾아보았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다 훑고 난 뒤에, 오, 진리가 얼마나 밝고 영화롭게 드러났던지!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온 바를 발견하였다. 나는 '일곱 때'가 1843년에 끝난다는 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다음에는 2300일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나를 같은 결론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구주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알아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도 강하게 나를 강타하여, 나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박차와 뒤걸이띠를 갖추어야 한다. 나는 성경보다 앞서 가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그 뒤에 뒤처지지도 않을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든 나는 그것을 굳게 붙들겠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었다.

그의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적 방식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 또 다른 자리에서 그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곧 'the daily'의 의미를 확정하는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진술하였다. "나는 계속 읽어나갔고, 그것이 나오는 다른 경우는 다니엘서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그다음 나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곧 '제거하다'를 취했다. '그가 the daily를 제거하리라', 'the daily가 제거되는 때로부터' 등. 나는 계속 읽었고, 그 본문에서 어떤 빛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7, 8에 이르렀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이요, 그 후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등. 그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명백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났던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이 곧 'the daily'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막는 자', 곧 방해하는 자로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죄의 사람'과 '그 불법한 자'로는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교황권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교다. 그렇다면 'the daily'는 이교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아플로스 헤일, The Second Advent Manual, 66.

인간적 및 신적 두 차원의 섭리적 인도가 밀러의 연구에 작용했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 그의 오랜 친구가 그를 독려하였고, 그에게 떠오른 생각들은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이었었는데, 화이트 자매는 'line upon line'이라 표현하며 그 가브리엘을 밀러를 거듭 방문한 천사로 식별한다. 그는 일곱 때를 자신의 첫 발견으로, 이어 2,300을 일곱 때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 식별하였으니, 그 둘이 1843년에 끝난다고 (그는 처음에는 믿었다). 그 두 예언은 그의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발견들이며, 밀러와의 예언적 관계성 속에서, 일곱째 달 운동을 개시한 한밤중 외침의 기별로 사무엘 스노가 교정하게 될 그 오류를 지목한다. 한밤중 외침의 운동은 엑서터 야영회에서 떠날 때 일곱째 달 운동이었으니, 이는 일곱째 달 열흘, 곧 1844년에는 10월 22일에 해당하는 날에 주의 임하심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사의 권능이 강화되게 한 그 실수는, '일곱 때'와 2,300년이 1843년에 함께 결말을 맺었다는 밀러의 초기 이해로 대표된다. 그 본문에서 다음으로 논의되는 교리는, 밀러가 어떻게 로마를 환상을 확립하는 표상으로 식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재림교회 역사 교사들은 윌리엄 밀러의 모든 예언적 이해가 그가 두 가지 황폐케 하는 권세를 식별한 것에 기초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두 황폐케 하는 권세를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로 이해하였으며, 다니엘서의 '상번제'가 이교 로마라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 두 권세를 보았다. 화이트 여사가 우리에게 그가 천사들의 반복된 방문을 받았다고 알려 주는 밀러가 제시한 모든 예언적 모형은, 로마가 환상을 확립한다는 그의 이해에 기초해 있었다. 모두 다 그러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풀고 계신다. 그 시점부터 근본적 시험이 시작되었고, 2025년 5월 8일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재위를 시작할 때 그것은 종결되었다. 그 시점에 성전 시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논의를 계속하고, '250년'이라는 연한을 증거로 삼아, 근본적 시험이 현 교황을 끝으로 종결되었다는 우리의 식별을 뒷받침할 것이다.